

R&D팀

2021년 6월 MICE 산업 동향

2021. 7.

목 차

1. 2020 ICCA 연례 통계 보고서	3
2. 해외시장 동향	7
3. 국내시장 동향	17

1. 2020 ICCA 연례 통계 보고서)

가. 개요

■ ICCA, 코로나 19 영향력 고려한 새로운 통계조사 카테고리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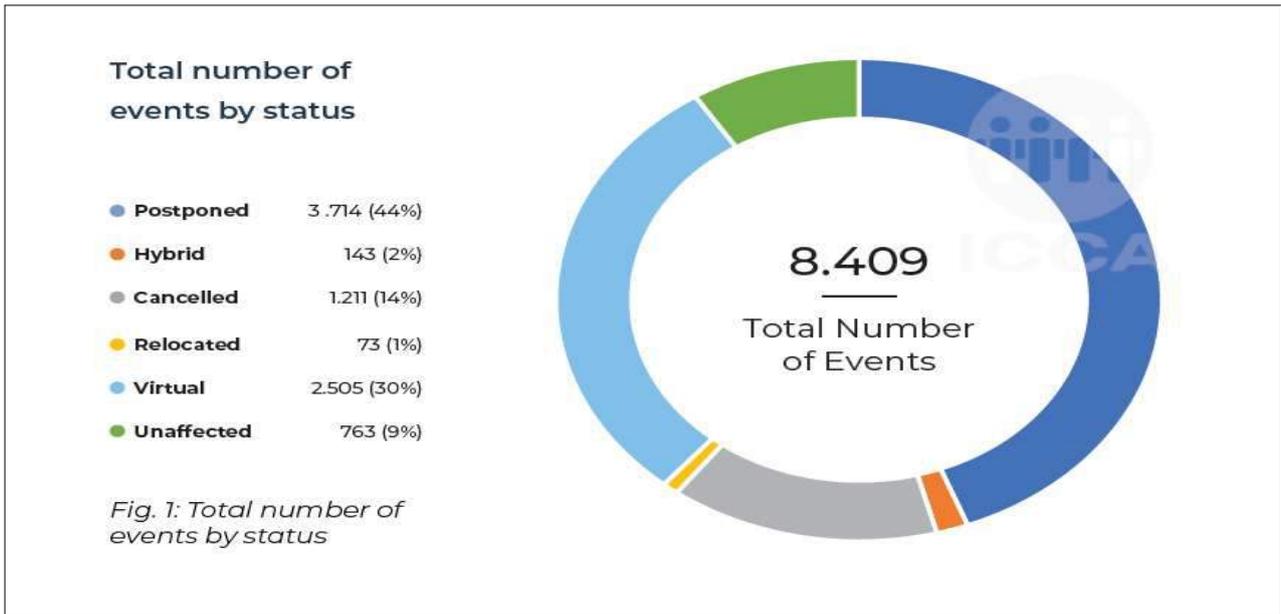
- 2019년까지 국제컨벤션협회(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이하 ICCA)는 비정부기구(협회)가 주최하며, 총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3개국 이상을 순회하는 회의를 기준으로 국가별·도시별 국제회의에 대한 랭킹을 공개함
 - 2019년 서울은 ICCA의 기준을 충족한 국제회의 총 114건을 개최했으며, 세계 순위 15위와 아시아 국가 4위를 기록함
-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이 MICE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자, ICCA에서는 통계 보고서에 정상 개최 외에 새로운 카테고리로 버추얼과 하이브리드 미팅, 연기, 취소, 개최지 변경 행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신에 국가별·도시별 개최 실적과 랭킹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함

나. 통계분석 결과

■ 행사 유형별 분석 및 월별 행사 유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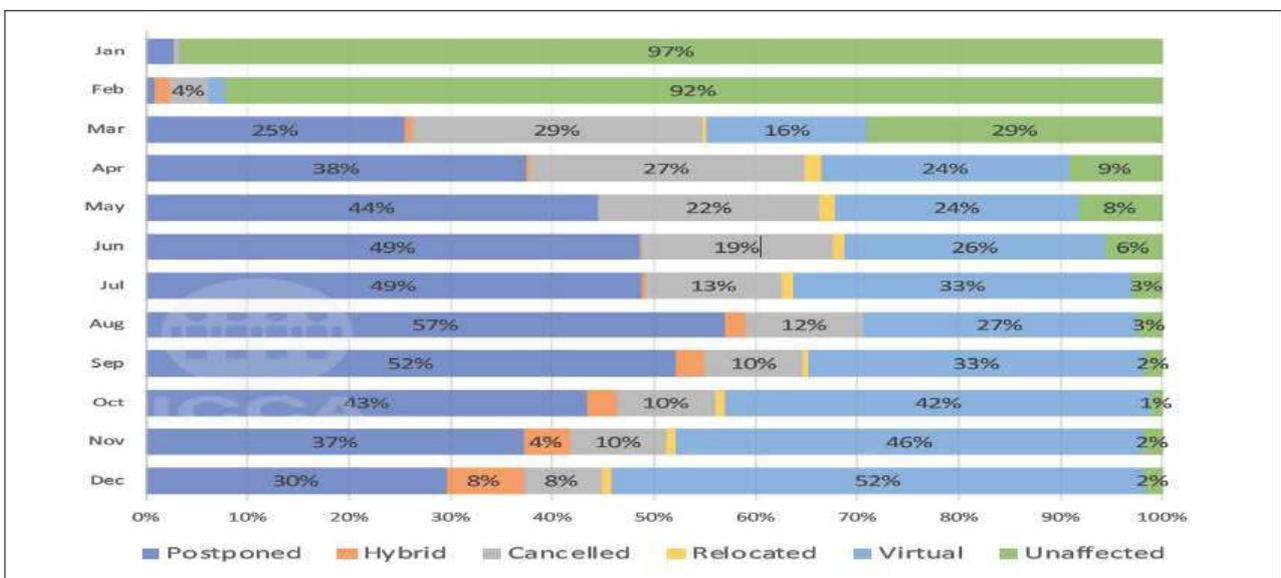
- 2020년 집계된 총 8,409건의 행사는 코로나 19로 대부분의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행사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행사 메뉴와 호텔 등이 문을 닫으며, 행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지면서 예년보다 집계 건수가 현저히 낮음
- 2020년에 집계된 행사 정보는 (그림1)과 같이 8,409건으로 비중으로 봤을 때, 연기된 행사 3,714건(44%), 버추얼 2,505건(30%), 취소 1,211건(14%), 정상 개최 763건(9%), 하이브리드 143건(2%), 개최지 변경 73건(1%) 순임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를 연기하거나 버추얼로 개최한 비율이 다소 높으며, 반면에 취소한 행사 비율은 14%로 MICE 업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행사를 취소하기보다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1) 본 고는 국제컨벤션협회(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CCA)에서 발간한 2020년 연례 통계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1] 전체 국제회의 개최 유형 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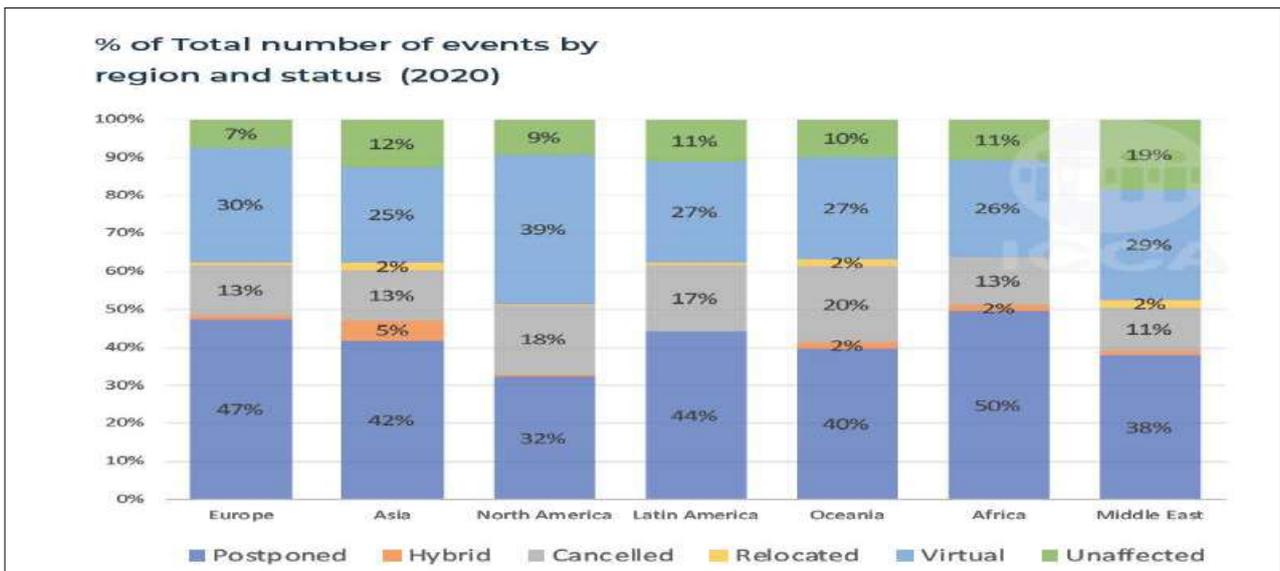
-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2020년 1월과 2월은 정상 개최된 행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3월부터 행사 유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함
 - (그림2)를 보면, 연기 및 취소되거나 버추얼 하이브리드 행사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버추얼과 같이 온라인 또는 가상 환경을 이용한 행사는 3월 16%에서 12월 52%까지 9개월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을 통해 코로나 19로 MICE 업계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 월별 개최 유형 별 비율

■ 대륙별 개최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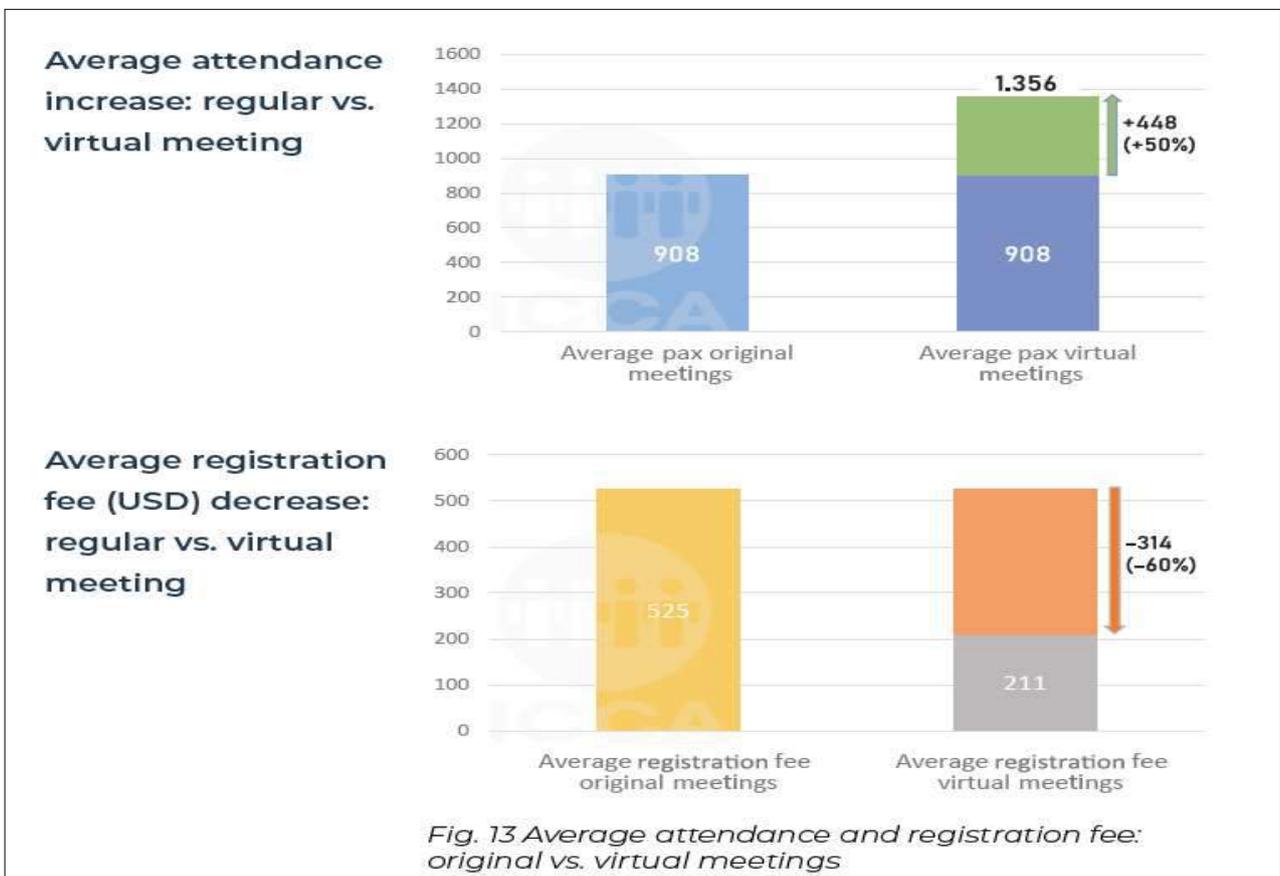
-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행사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3)과 같음
- 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하이브리드 행사 비율이 5%로 가장 높으며, 정상 개최 12%, 버추얼 25%, 취소 13%, 개최지 변경 2%, 연기 42%로 나타났고, 이는 MICE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미팅 테크놀로지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비대면 MICE 행사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대륙별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연기된 행사가 47%에 달하며, 버추얼로 개최한 행사가 30%로 나타난 것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추세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음
 - 남아메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버추얼 행사 비율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연기한 행사 비율이 가장 낮음
 - 라틴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연기된 행사가 각각 44%, 40%이며, 버추얼로 개최한 행사는 두 지역 모두 27%임
 - 아프리카의 경우 전체 행사 중 50%를 연기했으며, 중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상 개최가 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대륙별 개최 유형 비율

■ 하이브리드와 버추얼 행사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

- 2020년은 하이브리드와 버추얼 행사가 급증한 해로 많은 주최기관은 약 2,648건 (전체 행사의 약 32%가량)의 기존 대면 행사를 하이브리드(2%)와 버추얼 (30%) 행사로 전환함
- 이러한 MICE 산업의 디지털화로 MICE 행사가 물리적 이동에 대한 부담이 줄자 온라인 참가자 수가 늘고, 등록 비용이 절감됨
- 그러나, 국외 MICE 행사 참가자를 통한 경제적 낙수 효과인 행사 목적지의 여행비용, 숙박비, 식·음료 비용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MICE 산업 뿐 아니라 관광 전반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평균 참가자 수는 대면 행사에 비해 버추얼 행사에서 약 50% (448건)가 증가했으며, 행사 등록비의 경우, 대면 행사에 비해 약 60% (314달러, 한화로 약 35만원)가 절감됨



[그림 4] 정상 개최 대비 버추얼 행사 참가자 수 · 등록비 감소 비율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태국: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푸켓 재오픈에 맞춰 MICE 행사 유치 확대 목표 수립

- 태국은 2020년 10월 ~ 2021년 9월까지 14개의 국제 비즈니스 행사가 취소되고 39개의 행사가 연기되었으며, 현재 44개 행사만 정상 개최될 것으로 집계됨
- 또한, 태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표 관광지인 푸켓을 재개장할 것이라 발표함
- 태국 컨벤션전시뷰로(Thail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Bureau, TCEB)는 7월 푸켓의 재오픈에 맞춰 태국 MICE 행사 유치 확대가 목표라 밝혔고 푸켓에 방문하는 기업과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 태국 정부는 침체된 태국 MIC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 인도, 대만과 같은 근거리 지역을 타겟 시장으로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 여러 항공사와 협력하여 2박 이상 태국에 머무는 3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과 MICE 기업에 대해 관광 지원 패키지를 출시할 계획이라 밝힘

■ 태국: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네트워킹 및 마케팅 계획

- 태국 컨벤션전시뷰로(Thail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Bureau, TCEB)는 중국 아웃바운드 비즈니스 시장을 타겟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임
 - 태국은 5월부터 중국 광저우 지역 마케팅 담당자를 추가 배치하고, 중국 남부 지역으로 홍보와 행사 연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음
- 또한, 6월 22일~23일간 태국 기업과 중국 바이어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IME 2021 Business Exchange Chinese Speaking Edition 버추얼 행사를 개최하고, 2021년 말까지 인센티브 지원 패키지를 출시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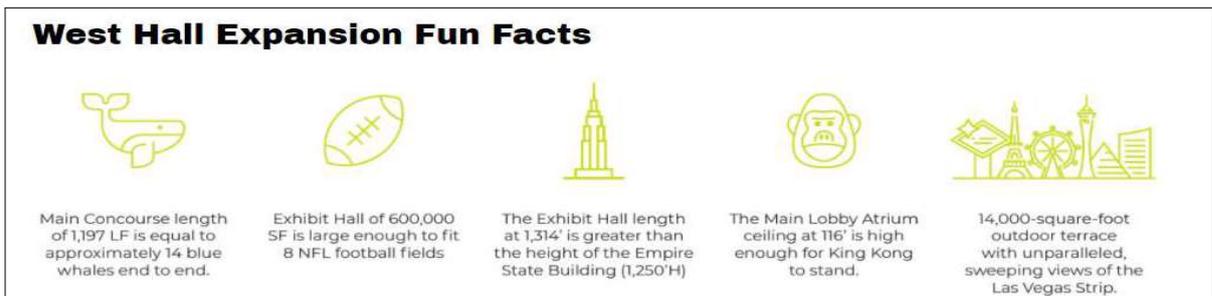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증 프로그램 개발로 MICE 행사장 안전 인증 절차 수행

-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이벤트 위원회(Business Events Council Malaysia, BECM)와 말레이시아 컨벤션 뷰로(Malaysia Convention & Exhibition Bureau, MyCEB)는 말레이시아 컨벤션 주최국(Malaysia Convention and Exhibition Organisers, MACEOS)과 협력하여 MICE 행사 개최시 컨벤션의 안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함
 - ‘말레이시아 인증 프로그램(Malaysia Certification Program)’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인 문화관광청(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의 승인을 받았으며, MICE 행사장 감사 및 평가와 안전인증 절차 이행을 맡고 있음
-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이벤트 위원회(BECM)의 회장 앨런 프라이어(Alan Pryor)는 ‘말레이시아 인증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표준 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와 더불어 MICE 행사 장소, 전반적인 운영, 음식 서비스, 접대, 운영관리 등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말레이시아 인증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통제된 이벤트 환경을 인증하기 때문에 기업의 신뢰성과 MICE 전문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MICE 기업이 증가할수록 말레이시아의 장소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모든 MICE 행사 메뉴의 인증 프로그램 이수를 촉구함

나. 미주 지역

■ 미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디지털 야외시설 웨스트 홀(West Hall) 확장 예정

-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as Vegas Convention Center, LVCC)는 양질의 국제 무역 박람회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컨벤션 및 전시업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야외 시설인 웨스트 홀(West Hall)을 확장하기로 함
-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는 10억 달러(한화로 약 1조 1300억 원)를 투자해 웨스트 홀의 40만 평방피트를 증축했으며, 대형 홀 32만 8천 평방피트, 회의 공간 15만 평방피트, 야외 테라스 14,000평방피트를 구성함
 - 야외테라스는 최대 2,000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벤트나 공연 후 주제에 맞는 다양하고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라스베이거스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지로서의 매력 또한 갖춤
 -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회의 공간 구축을 위해 웨스트 홀에 접이식 도어를 설치하여 80개의 회의실로 분리할 수 있으며, 회의 시설과 장비는 복도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유리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파티션을 설치함
- 또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는 글로벌 바이오리스크 자문 위원회(Global Biorisk Advisory Council, GBAC)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감염 물질 및 전염병을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해 도입한 GBAC STAR 인증을 네바다 주에서 처음으로 받음
-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와 웨스트 홀에서 열리는 주요 박람회로 2022년에 세계 건축박람회(World of Concrete)와 소비자 가전 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가 예정되어 있음



[그림 5] 웨스트 홀(West Hall)의 확장 요소

■ 미주: MPI 세계교육의회, 하이브리드 시저스 포럼에 백신 접종자 마스크 착용 제외

- MPI 세계교육의회 (MPI's World Education Congress, WEC)는 6월 21일~23일까지 하이브리드 시저스 포럼 (Caesars Forum)을 개최해 MICE 산업 전문가 1,200명 이상이 오프라인 행사장에 참여하고, 56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함
 - 오프라인 행사장에서는 코로나 19 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참가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참가자들은 대규모 행사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안내함
 - MPI 세계교육의회 (WEC)는 지난 2020년에 하이브리드 'WEC Grapevine' 행사를 개최한 선례가 있음



[그림 6] 하이브리드 MPI 세계교육의회(WEC) 로고

다. 구미주 지역

■ 네덜란드: ICCA,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지속가능성(GDS)과 파트너십 체결

- 국제회의컨벤션협회(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CCA)는 ICCA 회원국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이벤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지속가능성(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GDS)과 파트너십을 체결함
- 파트너십은 ICCA 회원국이 2021년 6월 9일에 시작된 GDS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관광 이벤트 마케팅 및 조직관리 교육을 이수할 경우, 'ICCA 인증서(ICCA Certificate in Regenerative Destination Management)'를 획득할 수 있음
- GDS 아카데미는 관광 이벤트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전 세계 ICCA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MICE 행사 개최 수요를 충족시키고, 세계화에 따른 MICE 산업의 국가 간 장벽을 최소화하여 전 세계의 MICE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음
- GDS 아카데미는 MICE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MICE 업계와 컨벤션 조직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등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습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GDS 아카데미의 궁극적인 목적은 MICE 분야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하여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수요에 맞는 관광 행사를 제공하여 행사 개최 지역의 사회적·환경적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영국: 현지 MICE 산업 회복을 위한 국내 지원 기금 론칭 및 신청 접수

- 영국 관광청 (VisitBritain)은 현지 MICE 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지원 기금(Domestic Support Fund)’를 론칭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함
- 10만 파운드(한화로 약 1억 5,917만 2,000원) 상당의 규모로 제공되는 이번 지원 기금은 2021년 6월 21일~12월 17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되는 회의, 컨퍼런스, 이벤트 등 비영리 기관 및 자선 단체에서 개최하는 100명~500명 규모의 MICE 행사 당 최대 15,000파운드(한화로 약 2,387만 6,250원)를 지원함
- 영국 관광청의 나이젤 허들스턴(Nigel Huddleston)장관은 기금은 영국 전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국경 재개방과 복구를 위해 시기 적절하고, 가치 있는 제도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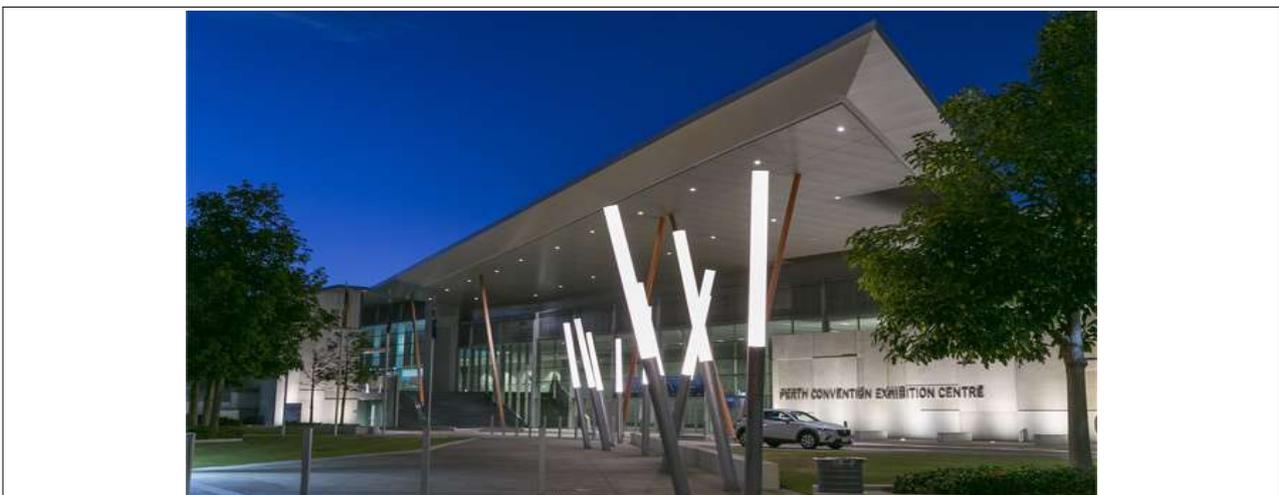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국제 컨퍼런스 센터, 그린투어리즘 인증제도 획득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증제도인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은 친환경 미팅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국제 컨퍼런스 센터(Edinburgh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EICC)가 그린 투어리즘 인증을 획득한 첫 번째 메뉴로 선정됨
 - 그린 투어리즘 인증제도는 에너지, 물, 폐기물, 음식,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 등 UN의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의 기준과 수칙을 준수하는 회의와 행사 장소를 강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임
 - 그린투어리즘은 11월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될 UN 기후 변화 컨퍼런스를 앞두고 개최지가 환경적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론칭함
- 에든버러 국제 컨퍼런스 센터의 그린투어리즘 책임자인 안드리아 니콜라스(Andrea Nicholas)는 그린 투어리즘 인증제도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을 회복하기 위한 친환경 미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힘

라. 기타 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비즈니스 이벤트 퍼스 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의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

- 비즈니스 이벤트 퍼스 컨벤션센터(Business Events Perth)는 서호주 MICE 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비즈니스 행사의 프리미엄화를 전략적으로 기획하였고, 서호주의 컨벤션센터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3D 및 새로운 기술을 도입 후 선제적으로 가상 투어 시스템을 구축함
- 비즈니스 이벤트 퍼스(Business Events Perth)에서 공개한 새로운 3D 디지털 ‘셀프 가이드 투어’는 퍼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베뉴인 크라운 퍼스(Crown Perth), 퍼스 컨벤션전시센터(Perth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옵투스 스타디움(Optus Stadium)의 천장 높이와 벽, 물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가상 투어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설계함
 - 비즈니스 이벤트 퍼스(Business Events Perth) 공연장은 현재 15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 3D 공연장이 출시 될 예정이고, 가상 투어 참여자는 컨벤션 행사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가상의 ‘인형의 집’ 모델로 참여할 수 있음



[그림 7] 비즈니스 이벤트 퍼스(Business Events Perth)

■ 뉴질랜드: 타키나 웰링턴 컨벤션 전시센터, 친환경 시스템으로 그린 스타 디자인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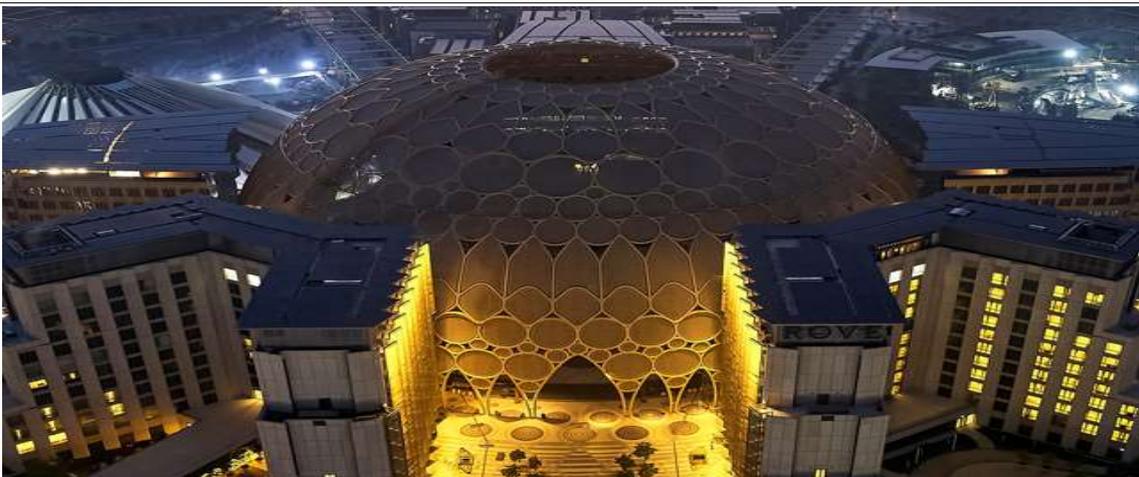
- 타키나 웰링턴 컨벤션 전시센터(Takina Wellington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는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NZ 그린 빌딩위원회(NZ Green Building Council)로부터 5성급 그린 스타 디자인(Green Star Design) 인증을 획득함
- 타키나 웰링턴 컨벤션 전시센터는 2023년 중반에 개장할 예정으로, 향상된 단열재와 유리 솔루션, 자동제어 LED 조명, 에어컨 및 환기 시스템 등 친환경적이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타키나 웰링턴 컨벤션 전시센터는 친환경적 공간 설계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66%가량 감소시켜 60%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음
- 프로젝트 책임자 대니 맥콤(Danny McComb)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컨퍼런스 및 국제 회의 장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에 주목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과 이벤트 참여자들의 복지를 고려하고자 했다고 밝힘



[그림 8] 타키나 웰링턴 컨벤션 전시센터(Takina Wellington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제6회 국제참여회의(IPM) 전 세계 370명 이상 대표단 방문

- 지난 5월 4일~5일까지, 두바이 전시센터(Dubai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된 제6회 국제참여 회의(International Participations Meeting, IPM)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의 370명 이상의 대표단이 두바이에 방문함
 - 제6회 국제참여회의(IPM)는 190개국 이상의 참가국 중 173개국이 참여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임
- 국제참여회의(IPM) 기간 동안 컨벤션 참가자들은 MICE 운영, 보안, MICE 도시 개발,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MICE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주최자들은 코로나 19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아랍에미리트의 방침에 따라 엑스포의 스태프와 참가자 등 모든 방문객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킴
 - 월드 엑스포는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메가 이벤트 중 하나로, 국가, 기관, 학술기관, 기업을 포함한 2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임
- 국제참여회의(IPM)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월드 엑스포(World Expo)는 170년 역사상 최초로 참가국마다 파빌리온(Pavilion)을 통해 참가국 고유의 문화를 선보이고, 다양한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음
 - 월드 엑스포는 아랍에미리트 창립 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아랍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형 엑스포임



[그림 9] 2020 두바이 엑스포 파빌리온(pavilion)

■ 세계 각국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 세계 각국 MICE 도시 회원국으로 가입해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2021년 6월, 코스타리카 컨벤션뷰로, 일본의 후쿠오카 컨벤션뷰로, 영국의 리버풀 컨벤션뷰로, 에쿠아도르의 키토 관광청, 캐나다의 관광 위니펙은 지난 2020년 12월에 MICE 분야 기업과 도시 간 국제 하이브리드 행사의 네트워킹을 위해 설립된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Hybrid City Alliance)의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함
 - 2020년 12월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는 네덜란드 헤이그, 스위스 제네바, 체코 프라하, 캐나다 오타와의 협력으로 설립된 이래로, 2021년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울과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회원국으로 합류함
-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Hybrid City Alliance)는 각 도시의 컨벤션뷰로가 경쟁이 아닌 상생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트렌드에 맞춰 MICE 행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하이브리드 이벤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또한, 하이브리드 이벤트 발전을 위해 하이브리드 행사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지 파트너와 연결하는 등 하이브리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함



[그림 10]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Hybrid City Alliance) 웹사이트

3. 국내시장 동향

- 서울: 코엑스, 서울 국제관광박람회 국내외 90여 개 관광청, 지자체 등 참여로 성공리 개최
 - 6월 24일~27일까지 국내외 관광 및 MICE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36회 서울 국제관광박람회(Seoul International Tourism Fair, SITF)가 코엑스에서 개최됨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서울국제관광박람회(SITF 2021)는 한국 국제관광전 코트과(KOTFA)가 주최한 35년 역사를 가진 국제종합관광박람회임
 - 2021 서울국제관광박람회는 국내 17개 시·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해외 관광청, 공공기관, 여행업체 등 총 40개국과 국내 50여 개가 참여했으며, 각 국가의 여행,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됨
 - 또한, 여행토크쇼, 온라인 인바운드 트래블마트를 비롯해 B2B 관광사업설명회, 안전 여행 강연, 국내외 민속공연 및 세계의상 패션쇼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해외 부스에서는 타이완의 VR 영상체험, 멕시코의 ‘멕시코 방문의 해(Visit Mexico)’ 기념사진 콘테스트, 페루의 전통음악 공연, 방글라데시의 전통춤 공연과 각국의 MICE 산업 전문가들의 토크쇼가 열려 최근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대해 토론함



[그림 11] (좌) 서울 국제관광 박람회 포스터, (우) 박람회 현장

■ 인천: 송도, 2021년 한국 관광박람회(KITE)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

- ‘2021 한국 관광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Travel Expo, KITE)’가 6월 29일~7월 13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과 송도컨벤시아에서 오프라인 행사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행사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됨
- 이번 박람회는 기존에 MICE, 국내 여행, 럭셔리 관광, 웰니스 관광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열리던 박람회를 처음으로 통합 개최했으며, 코로나 19로 위축된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 행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사업 상담 창구가 마련돼 국내 여행사, 항공사, 의료기관 등 1천여 곳과 해외 약 40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해 MICE 산업 전문가들과 상담을 진행함
- 또한, 첨단 회의기술 활용 방안, 국제관광 재개 동향, 럭셔리 관광의 미래 전망, 웰니스 관광의 세계적 추진 동향 등 코로나 19 이후 관광산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주제별 국제회의가 개최됨
- 29일 개막식에서는 싱가포르 관광청 (Singapore Tourism Board) 부청장 창 치 페이 (Chang Chee Pey)와 영국 배우이자 여행 프로그램 진행자인 조애나 럼리 (Joanna Lumley)가 각각 싱가포르와 영국 현지에서 홀로그램으로 출연해 실시간으로 코로나 19 이후 국제관광 재개 전략에 대한 의견을 밝힘



[그림 12] 2021 한국 관광박람회 온라인 플랫폼

■ 경상도: 부산, 한국 최초의 등록 엑스포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준비 시작

- 6월 23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에 방문하여 '2030 월드엑스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요 관계자들과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돌입함
 -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원활한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제기구로, 연 2회 나라별로 1~3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박람회 일정, 등록 여부, 개최지 등을 논의하고, 2023년 11월에는 최종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를 발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월드 엑스포(World Expo)는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로 나뉘며, 등록 엑스포는 개최도시가 행사 부지를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를 들여 전시관을 짓는 것이 특징으로 5년에 한 번, 최장 6개월에 걸쳐 개최되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임
 - 반면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가 열리는 사이에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개최국이 전시관을 지어 참가국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1993년 개최되었던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가 대표적인 예임
- 부산광역시가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 엑스포 개최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제2센텀 조성 등 현재 부산이 추진하는 각종 운송 및 무역 프로젝트와 엑스포를 연계하여 남부권의 새로운 발전 마련을 목표로 함
- 박형준 시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20년 월드컵' 개최지로서 경험이 있으며,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등록 엑스포 유치에 승산이 있으며, 세계 3개 메가 이벤트 중 경제 효과가 가장 큰 등록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국가발전전략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힘

■ 경상도: 대구, 엑스코 제2전시장(동관) 개관 등 MICE 산업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 지난 4월 28일, 대구는 엑스코의 제2전시장(동관)을 개관했으며, 엑스코에서 경북대학교 일대가 대구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되고, 세계 가스 총회 개최지로 확정되는 등 대구의 MICE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제2 전시장의 전시면적 1만5000㎡ 규모로, 기존 서관 1층 1만5000㎡ 등을 포함하면 총 전시면적 3만7000㎡를 확보해 국제적인 전시컨벤션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며, 올해 총 80개의 전시회가 개최할 예정으로 전시장 가동률 확대와 동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세움
- 엑스코는 제2 전시장에서 문화, 예술, 공연 등 복합 문화 행사 개최가 가능하며,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이 확정되면서 취약했던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역 산업문화 복합 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통해 발생할 지역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엑스코의 서장은 대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기업 간의 B2B 전시회에 더욱 집중해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중견 및 중소기업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MICE 산업에 적극 기여 할 계획이라 밝힘



[그림 13] 대구 엑스코 전경

■ **광주: 광주관광재단, 지역사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주 관광발전포럼' 출범식 개최**

- 22일, 광주관광재단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관광 분야 민·관·산·학 협의체 구축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광주관광발전포럼 개최의 첫 단추로서, 업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함
- 광주관광발전포럼은 '천만 국제관광도시 광주 도약'을 목표로 관광협업위원회, 관광 브랜드위원회, 콘텐츠개발위원회, 예술관광 활성화 위원회, MICE 산업 위원회로 구성된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 120명이 오는 2023년 6월까지 광주관광발전포럼 위원으로 활동함
- 각 분과 위원회 별 회의에서 중장기 관광산업 발전 방향 제시, 광주다움 관광 브랜드 구축, 광주 관광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국제회의 광주 유치 확대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함



[그림 14] 광주 관광발전포럼 출범식

■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및 전북문화관광재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제11회 전북 트래블마트' 개최

-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하여 전라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순창군 국민체육센터와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6월 25일~26일 이틀 동안 '제11회 전북트래블마트'를 개최함
- '제11회 전북트래블마트'는 6월 28일 베트남 공영방송 VTC & VTV 뉴스와필리핀과 중국에도 영상을 송출하는 등 향후 국제 관광시장 재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 밝힘
- 전북트래블마트는 전북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행사로 학·협회 및 관광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전북 MICE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상담회를 진행했으며, 전주시는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B2B 상담을 통해 전주시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전주시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설명회에 주력함
 - 또한, 전주시 지역 특산품과 관광 거점도시 전주 브랜드 아이덴티티 (Brand Identity) 인 'YOUR TASTE JEONJU'를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함



[그림 15] 2021년 제11회 전북트래블마트